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신정훈 나주시장

“혁신도시 성공 올인”

신정훈 나주시장의 올 한해 최우선 시정 목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이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구 집중과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각종 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 혁신도시는 올 상반기 토지 보상



개선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신·구도시간 발전의 균형을 맞춰 가기로 했으며 자전거 테마파크와 스포츠 테마파크도 조기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임대산단과 생활지원센터에 기능 성식품·바이오 기업·전자부품을 특화한 35개 유망 기업을 유치해 8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경제 활성화 계획도 추진된다. 또 사회 복지 안전 자킴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자활복지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도입도

영산강 개발도 본격화

에 이어 늦어도 10월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신시장은 이와 함께 올해를 ‘역사·문화중심도시’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립 나주 문화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암리 고분 전시관 건립 및 반남 고분군 공원과 사업, 나주읍성·금성관 복원사업 등 고대문화 유적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35개 유망기업 유치

높이고, 학교 급식은 모든 품목을 우리가 가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마련중이다. 신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송월지구와 남평소도읍 개발 및 도시주거환경

친환경농 집중 육성

가시화 된다. 오는 2010년까지 209억 원을 투입, 6천900명의 노인 일터를 새로 만드는 한편, 불우노인 돌보기, 무료경로식당 도입 등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마련된다. 신정훈 시장은 “혁신 도시건설과 영산강 고대 문화권개발, 국립나주 박물관 건립 확정, 나주 문화재 연구소 신축 그리고 영산강 강변도로 까지 구체화됨에 따라 올해는 나주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며 “모든 시민이 달라진 시정 모습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민생행정·체감행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목포 원도심 침체 벗어나려면 도로 넓히고 재개발해야”

주민 1,171명 설문

“인구감소도 심각한 문제”

목포 원도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교통불편, 열악한 주거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최근 원도심

지역 주민 1천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성의 31.4%가 ‘인구 감소’를, 여성은 23.7%가 ‘주거 환경’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교통불편’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정비’ ‘정주인구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20·40·60대 연령층 응답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답했으며, 여성과 30·50대에서는 ‘공공기관 입주와 상가활성화’를 꼽았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3.7%, ‘보통이다’ 48.5%로 조사돼,

원도심 주민 10명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10명 가운데 7.6명이 ‘모르고 있다’고 답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중앙시장 재건축(21.5%)이 가장 중요할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도로 확충(17.3%)과 화장실·쉼터 조성(16.5%), 이벤트 개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34.7%가 ‘서비스 개선’을 들었으며, ‘상점시설의 현대화’(25.7%)와 ‘차체 이벤트 개발’(24.4%)이 그 뒤를 이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미나리 수확 한창

미나리 산지로 유명한 나주시 금천·노안면과 인접해 있는 광주시 광산구 용봉동 미나리광에서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다. 이곳 미나리는 맛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해 포장되기가 바쁘게 서울로 출하된다. /연합뉴스

‘평가우수’ 광산구 특별교부세도 가장 많이 받아

광산구(청장 전갑길)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총 6억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받았다. 광산구가 행자부로부터 지급받은 특별교부세(상사업비) 6억6천만원은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5개 구청이 받은 특별교부세 14억9천

작년 6억6천만원 지급 광주, 5개 구청중 최고

만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 ▲정보화 우수기관 지정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원 ▲지방재정운영 A등급 1억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평가 장려상 2천만원 ▲지방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상 2억원 ▲간판시범거리 조성평가 3억원 등이다. 전갑길 청장은 “구민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주민속원 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담양 레저·관광 투자유치 활발

놀이공원·스포츠랜드 등 테마별 관광단지 조성 3~4개 업체 참여의사 확인... 토지 매입 등 활기

담양군의 레저·관광 분야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담양군은 놀이공원, 수목원, 스포츠랜드 등 테마별 관광단지조성에 대한 3~4개 업체의 투자 의사를 확인, 토지매입 등 실무절차를 진행중이다. H기업은 놀이공원, 눈썰매장, 물놀이장, 소형 동물테마 파크 등을 갖춘 2만5천여평 규모의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또 다른 업체들은 제주

한림원과 유사한 성격의 20만평 규모의 수목원과 수석공원을, 콘도·골프장·휘트니스 파크 등을 갖춘 100만평 크기의 다목적 스포츠·레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을 각각 보이고 있다. 이밖에 K기업에서는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전남과 경상도 서부관할 불우단체를 조성키 위해 부지를 매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나 군은 사업 초기단계 정보 유출에 따른 토지가격 인상 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MOU 교환에 앞서 토지매입과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능력 평가 등 사전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해 5천억 원 규모의 초소형 정밀 디스플레이 공장 건립 등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사업들이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업체의 불확실한 투자지사로 잇따라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백지화되기도 했다. /담양=채재희기자 jhw@

전/북/소/식

순창 짚풀공예 사업 각광

순창군 유등면 짚풀공예 사업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5명의 노인들이 지원금 366만원으로 시작, 2005년 45만2천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으며 지난해 열린 제 1회 장류축제기간동안 137만여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해에는 9명(대표 윤영신·65세)으로 참여인원이 확대되는 등 점차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또 무주군 주최 전국노인솜씨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농촌진흥청 주관 짚풀공예공모전에 출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강진산 종합관광안내소와



노인전문요양원에 짚풀공예품 10여점이 각각 전시되는 등 수준 높은 짚풀 공예 솜씨를 과시하고 있다. /순창=이흥식기자 hslee@

Advertisement for 'Jae-ri' (재이리) wood processing industry. It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재이리' and '목재가공산업의 모든것 '재이리' 이젠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재이리'와 상의하세요!'. Below the banner are images of a modern wood processing facility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가공산업(사무관, 4인1기)', '공구사업', '목재제재사업', '목재유역사업', '합판가공업', '목재수입업'. At the bottom,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지원조합' with phone numbers 061-337-5535 and 061-334-5535.